

# 與 “재판 지연” vs 野 “위법 수사”... 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

##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균택(광산갑) 국회의원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대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해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말했는데, 그 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장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법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받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국회 소속 야당 행안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보궐 선거인 수 864만명 ‘60세 이상 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선거인 수가 총 864만5180명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수 선거는 4만5248명, 곡성군 수 선거는 2만4640명이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등 4곳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한다.

성별 선거인 수를 보면 남성은 414만2789명(47.92%), 여성 450만2391명(52.08%)이다. 국내 선거인 수는 857만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만2044명, 외국인 선거인 수는 3만8175명이다. /연합뉴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65만4996명(30.71%)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다.

이러 50대 155만9694명(18.04%), 40대 144만525명(16.66%), 30대 147만7392명(17.09%), 20대 135만8024명(15.71%), 10대(18~19세) 15만4549명(1.79%)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선거인 수는 832만1972명이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19만589명,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6만2731명이었다. /연합뉴스

## 민주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의혹’ 총공세”

### 당내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서 집중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정에 대한 감사·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가진 권능을 철저히,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 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만들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5일 “일을 못 하면 선거 전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탄핵 빌드업’이라는 평가절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라며 심각하게 왜곡했다. 남의 말을 바꾸는 둔갑술이자 이런 대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의 해석”이라며 “설마 대통령 탄핵에 초대받지 못해 서운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일반론을 두고 굳이 ‘윤석열 탄핵론’으로 띄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미워할 만도 하다”며 “여권 발 탄핵론의 본질은 결국 ‘윤·한(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에 맞서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집권플랜북부를 설치해 당 전체의 집권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민형배,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최고치’ 도입 추진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의원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기준 코스 사용료를 최고치 아닌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기준-한



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이 수도권 46곳, 강원도 15곳, 충북 14곳 등 87개소로 전체의 3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 기준 코스 사용료는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이용료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한동훈, 친한계에 “믿고 따라달라”

### 의원들과 만찬... ‘야권 김건희 공세 상황보며 대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을 만나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7일 전했다.

또 여러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권이 국정감

사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 회동에서는 여권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공유됐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이날 만찬에 친한계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다음에는 각자 한두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는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도 오찬을 함께했다. 한 대표가 원내·외 인사들과 이를 연속 만나면서 당내 세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원들 가운데) 친한(윤석열)계라는 것이 사실은 20~30명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중립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실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 40명 이상”이라며 “그분들의 생각이 앞으로 점점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동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